

<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할 때 <구상>을 주면서 도우시고, <최고 첨단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>을 주면서 도우셨다. 누구든지 해 놓은 것을 보면, ‘하나님과 성령님이 도운 것’을 시인하고 안다.
2. 하나님과 성령님은 <때>를 지키도록 깨닫게 하며 도우셨다. 고로 ‘때’를 지켰다.
3. 하나님과 성령님이 도우시면, <빨리>하게 된다.
4. <사탄>은 사람들이 ‘지옥’에 가게 돕는다.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피고, 특히 ‘우상’을 숭배하게 하고, 우상에게 ‘물질의 재물’을 드리는 역천 행위를 하게 한다. 이렇게 사탄은 그 꾀를 받는 자들이 ‘지옥에 갈 짓’을 행하게 돕는다.
5. <우리를 돕는 자>는 ‘하나님’과 ‘성령님’과 ‘성자 주’이다. 삼위와 주를 믿으면, 전지전능하게 돕고 함께하신다.
6. <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 주>를 절대 믿고 ‘그 말씀’대로 행하면, 휴거되게 하며 ‘새 시대’에 해당되게 도우신다. 그리고 ‘천군 천사’와 ‘하나님이 부리시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’이 합당한 대로 돕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다.
7.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<마음>과 <정신>과 <사고>를 강하게

하도록 도우시고, 그로 인해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우신다.

8. 하나님은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, 구(舊)역사의 일들도 다 이루셨으니, 이제는 <새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돕는 일>을 집중적으로 하신다.
9. 어떤 한 남자가 <자기 사랑을 이룰 자>만 돕고 사랑하지 ‘딴 일’을 하겠느냐.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해 ‘그 사랑하는 여자를 돕고 사랑하는 일’만 한다. 절대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<사랑의 대상, 자신의 뜻을 이룰 자들>을 두고 그러하시다.
10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 ‘전지전능하신 존재자’ 이시다. 왜? <하나님보다 모든 것들이 수십만 배 약하고 미련한 인생들>을 가르쳐서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’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.
11.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들어 <전능자의 사랑의 대상>이 되게 한 것은 ‘천지창조’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다.
12. <한 남자의 사랑의 대상>이 되게 하는 것도 힘들다. 인물을 흠잡고, 인격을 흠잡으면서 ‘모든 각종 것들이 마음에 드는 대상’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. 더구나 ‘일생 동안 사랑할 대상’으로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.

<솔로몬>은 천 명의 여자 중에 ‘자기 사랑의 대상’이 한 명도 없다고 고백했다.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왕이 되어

사니, ‘솔로몬이 원하는 것들을 갖춘 사랑의 대상’이 없었다.
찾지도 못했고, 만들 수도 없었다.

사람도 이러한데, 인간이 <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>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얼마나 수만 가지를 돕고, 전능자의 실력을 다 쓰면서 도우셨겠느냐. 짐작도 해 보고, 대강이라도 깨닫고, 더 온전하게 깨달아야 된다.

13. 인간이 <하나님의 사랑의 대상>이 되도록, ‘그 수준’까지 만들어 낸 것이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전지전능하심’ 이시다.